**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창 15: 1-6>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난 주에 청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탄탄대로의 삶을 위한 모든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무언가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되어 열심히 교회봉사를 해야 하고, 전도를 하며, 세상에서 희생적인 삶을 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회사 고용주와 같습니다. 이 고용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의 성과에 따라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무자비하게 훈련시키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군대의 훈련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법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이 훈련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 넣으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결정을 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삽니다.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즐거움과 재미와 인생의 스릴을 끝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고리타분한 심술쟁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은 늘 기쁨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네 이미지는 모두 왜곡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한 과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보다 진실에 가까운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지만,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미끼로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의 성과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며 늘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한 우리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 인격적인 소통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적인 것들 대신에, 새로운 기쁨과 행복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 풍성한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춰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네 유형처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관한 공식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 갇힙니다. 그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후에는 그로 인해 실족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지니 하나님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는 이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실패하거나 낙오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납니다. 고용주 하나님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납니다. 훈련관 하나님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는 내가 원치 않고 또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리타분한 하나님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는 내가 이전에 누리던 즐거움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0-33)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마 8:26)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든든히 뿌리박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엡 3:17)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처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은 아브람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지금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앞 부분의 “이 후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브람의 두려움은 이 앞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람이 한바탕 전투를 치르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왕들간의 전쟁이 터졌고, 그 영향으로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장정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 가나안 네 왕의 동맹군을 쳐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소수의 인원으로 네 나라의 동맹군에게 승리한 것이니까요.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던 것일까?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14장 14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습,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가면서”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 대군을 상대하려니 역시 기습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전법으로 아브람은 롯의 가족들을 구출했을 뿐 아니라, 도망가는 적군들을 멀리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다는 뜻은 아니었겠죠. 아니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으니, 적의 보복을 염려해야 하는 더 불안한 상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람의 두려움은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작 318명으로 적의 대군에 승리한 것이 어찌 우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아브람도 당시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슬며시 스며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승리한 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저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공격해 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불안함 속에서 어쩌면 그는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의 수를 늘리고 훈련 강도를 높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시험을 망쳐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쩌나? 집에 갑자기 강도가 든다면?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긴다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이런 걱정도 하시죠.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참여하다 골수 신자가 되면 어쩌나? 참 별 걱정도 다 하십니다!

해외에 나와 사는 우리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해 못할 또 다른 두려움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선 안정적인 체류에 대한 걱정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6월에 장기체류허가 신청서류를 냈는데, 아직도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경찰서 방문하는 일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죠? 저는 세상 사람들은 둘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신청하러 체코 외국인 경찰서 방문해본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불친절한 체코 공무원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주눅이 드는지. 뭐가 잘못 돼서 또 와야 하면 어쩌나, 괜히 두렵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경우, 안전문제도 신경 쓰이는 일이지만, 이곳의 국제학교든 현지학교든 익숙지 않은 환경 속에서 초기에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이 있고, 이 심적 고통을 부모들도 함께 느낍니다. 이곳에 잠시 체류하다 귀국하게 될 청소년들에게는 곧 한국에 돌아가서 맞게 될 입시전쟁과, 그 속에서 뒤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군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아브람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주민이었고, 두려워하자면 두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 역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은 또 한번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합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적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그에 대비할 어떤 놀라운 전략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적이 절대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새겨 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 한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 말씀 한 마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들, 어느덧 희미해져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덧칠해져 버린 그 기억들을 온전히 되살려 주었습니다.(사 40:9) 지난 번 전투에서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치르신 전투였음이 다시금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면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늘 되새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걸음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신 당신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사 40:8)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롬 10:17)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산다면, 어느 순간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되새기며,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늘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2절에서 아브람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브람의 말 속에는 뭔가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게 무언가를 주시겠다고요? 뭘 아무리 많이 주신들 나는 자식이 없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비록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마 속으로 아브람은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큰 민족은커녕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큰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솔직히 잘 와 닿지 않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말 나온 김에 결판을 보고 말겠다는 듯이, 3절에서 한번 더 하나님의 속을 긁어댑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며 “네가 이 수많은 별들을 다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께 졸라야 해, 조르니까 뭐가 돼도 되잖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상황 자체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고, 그 일이 아브람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이 보태진 셈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니 후에 아브람이 또 한번 실수를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좀 너그럽게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솔직하게 “네가 100살이 될 때 아들을 주겠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법도 한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심술궂으신 건지, 낭만적이신 건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이전에 했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 다입니다. “아브람아,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를 불렀고, 그 일은 확실히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제야 아브람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시구나! 눈 앞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 사건을 통해 결국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람의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두려움과 서운함으로 채워졌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빨리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이 해결돼야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을 다그치며 산다면, 결국 우리는 평생을 문제 속에 갇혀 사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롬 4:20)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굳게 서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문제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쓸데없는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마 10:28)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고전 15:58)

내 안에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엡 3:17-19) 그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요 8:31-32)

내 것이 먼저 다 채워진 후에야 그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논리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뒤,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마 13:44)

한동안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온전한 비움’을 강조합니다. 온전한 비움이 이루어져야 이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에서도 ‘자기 비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자기 비움’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눅 9:23) 하지만 이 기독교의 ‘자기 비움’은 ‘온전한 채움’에 이어지는 이차적인 현상입니다.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면, 우리는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기 시작합니다.(빌 3:7-8)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상태일 때, 확실히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히 11:33-38)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반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여지없이 휘둘립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이기 이전에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내 마음의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요일 4:18) 이 땅에서 두려움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은 심판 날에 예수님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 확률이 높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계 21: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딤후 1:7)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을 바라보십시다!(마 2:18-20)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눈 앞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낯선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꼬빌리시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